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남지역 4개 군(郡) 대표와 특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라남도 및 전남지역 4개 지역 군수와 부군수를 만나 양 지역의 특산물 소비 촉진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김동연 지사, “전남과 맺은 상생협약 따라 특산물 판촉 열심히 돕겠다” 밝혀

를 가지고 있는 퍼플색 장미(딤퍼플) 시험 재배를 겨울 동안 전남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차진 해남부군수, 우홍섭 진도부군수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특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맺은 전라남도 4개 군의 군수님들, 부군수님들 모셔서 기쁘다”면서 “상생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전남지역 특산물 판매촉진이나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강진군하고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행사를 같이한다

는 계획도 있다”면서 “강진은 다산이 오래 계셨던 곳이고 남양주는 다산의 고향이라는 점을 살려 먹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교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우철 완도군수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놓고 계속해서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상생협약을 했다는 인연에 따라 시장과 군수를 만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하다”면서 “경기도에서 계속 도와준다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맺은 ‘수도권과 지방, 새로운 공

존공영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전남은 당시 △전남 친환경 농산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확대,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운영 등 상생 발전을 위한 6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에서는 마켓경기 소핑몰에서 특산물 판매와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판로를 확장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에서는 고양시 로컬푸드 매장 판매와 도청 구내식당 점심 메뉴 제공 등으로 특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12일부터 마켓경기(smartstore.naver.com/dmdnsang)에서 경기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라남도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가 육

성종인 퍼플색 장미(딤퍼플)를 옮겨올 전남 신안군에서 시험 재배하기로 합의했다. 퍼플색 장미는 경기도가 개발한 새로운 장미품종으로 올해 12월부터 신안군 퍼플섬(박지도, 반월도)에서 시험재배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을 보이는 전남지역에서 시험 재배를 하게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시험재배에 성공할 경우 퍼플색 장미묘를 육묘업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장미 생산기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군(群) 소속 박지도, 반월도를 연결해 ‘신안 퍼플섬’이라는 컬러마케팅을 시행 중으로 이번 시험재배가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병삼/기자

## 경북도 추석 명절 대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 사회적 고립 취약계층 등 위기가구 집중발굴 및 지원추진

경북도는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복지사각지대 특별발굴기간’을 지정·운영하여 위기가구 집중발굴·관리에 나선다.

‘특별발굴기간’ 동안 경북도에서는 22개 시군과 함께 단전·단수·단가스, 공공요금 미납 등의 빅데이터 기반 위기 징후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명절을 맞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독거노인, 중장년 및 청년 1인 위기가구 등 사회적 고립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899명)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32,201명),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2,090명) 회원들이 대상자 발굴에 함께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 외 장기 미거주자,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단절 가구는 시군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거주 및 생활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통해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시군별 위기가구 신고 단체특방인 ‘희망톡’ 및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 확인을 위한 ‘경북 마음안심서비스앱’을 운영한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로 지정하고 시군별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복지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 활동과 병행해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605개 거주인 17,555명에 대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 활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한 위문금 15억 원을 저소득층 15,294세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 위기가구 발굴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26일 도내 22개 시군 부단체

장 대상 추석 명절 종합대책 회의를 통해 시군별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중점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위기가구 신고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번없이 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역시 가능하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주민등록 주소지 특방에 입장해 내용을 입력·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 전국체전 기념 열린음악회로 ‘문화체전’ 서막

### 도민 7천여명 음악과 하나되는 축제장...체전 분위기 고조



전라남도는 목포에서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해 12일 저녁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7천여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의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열린음악회는 성공적인 체전을 치러내기 위해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으로서 의미를 더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남녀노소 모든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 연출로 일상에 지친 도민에게 심신을 위로하고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는 대화합의 무대로 치러졌다.

박소현 아나운서의 성공 개최 기원

멘트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의 인사말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본 공연에서는 장민호, 소찬휘, 스테이시(STAYC), 노브레인(Nobrain), 온앤오프, 유지나, 라포엠 등 국내 정상급 가수가 출연해 도민에게 감미롭고 수준 높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김영록 지사는 “체전에서 선수의 열정과 노력이 빛나기를 응원하고, 공연에서 펼쳐질 환상적 하모니와 감동이 도민과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음악으로 감동과 행복을 나누는 열린음악회가 모든 분들에게 즐겁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음악회는 대회 개막 5일 전인 10월 8일 오후 6시부터 지상파방송에서 80분간 방송된다.

전남도는 이날 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체전과 함께 자연·문화예술·관광을 아우르며 즐길 문화체전을 목표로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개회식 전날 특별기획 문화공연을,

체전 기간 주 개최지인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단체 공연과 낭만 버스킹, 수목 패션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도 문화행사로 개그쇼, 근대역사 체험행사, 창작 오페라, 버스킹 등이 열릴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체전이 코로나 일상회복 등의 영향으로 선수단과 관람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장 시설과 안전은 물론 교통·숙박·음식 등 모든 환경을 꼼꼼히 살펴 참가 선수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에 목표를 중심으로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박종배/기자

Busan is good

꼼꼼검사  
 촘촘감시

## 부산수산물

###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 안심하고 드세요

# 윤종호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신공항 활주로 문제와 경북도민 실익 확보 촉구

### 활주로 방향, 대구시는 비껴가고 경북만 피해봐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활주로 배치 방향의 문제와 사업추진의 도민 실익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통상적으로 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은 공역, 기상, 소음 영향, 작전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안정적이라고 입증될 때 비로소 결정된다”라며 포문을 연 후, “그런데 대구경북신공항은 처음 기본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수정 한번 없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적의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초에 고려된 부지에 짜 맞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구미국가산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구미국가산단과 신공항이 거리가 가까운데 혹시나 먼지·진동·소음 등으로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쳐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에 귀결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라며 “활주로의 방향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최근 대구시의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 일방적 통



보 및 의성군과의 갈등 사건으로 운을 띄운 후,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했다”라며, “신공항에 경상북도의 계획과 정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줄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윤타용/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행복기숙사 현장방문

### 기숙사 운영현황 및 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개관한 이래 꾸준히 입사생을 모집 중인 대구행복기숙사를 찾아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지역대학 협력 사업 및 청년 지원 사업들과 연계해 청년 인규입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했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도심에 위치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청년센터·지역대학협력센터·희망우장 등 공공시설과 시민 편의시설이 입주해 청년 주거 여건 개선과 취·창업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청

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대구행복기숙사가 청년들이 모여드는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행복기숙사는 수용 인원이 1,000명으로(현재 600여 명이 입주), 입주 신청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과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기숙사는 월 24만원으로 이용가능하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2일(화), 대구행복기숙사(중구 수창동 소재)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숙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역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 여건

##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해양수도 부산시는 해양산업에 대한 대처가 적절한가?' 점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12일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해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세계 50여 개 주요 해양도시 중 부산이 어느 정도의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해양수도는 곧 부산'이라는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 시대로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해양산업을 통해 먹거리 문제 해결, 일자리 제공, 경제적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해양도시 부산으로서 해양부시장 또는 해양경제특별보좌관을 임명하여 타 도시와 차별성 있는 전략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했고, 둘째, 해양수산산업의 융·복합형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셋째, 더 나아가 부산형 해양 신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을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시장에 대한 적극 행정을 요청하면서,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양도시가 될 수 있



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말숙 의원은 “해양산업은 곧 부산의 미래다.”며, “해양도시 부산을 떠받치고 있는 해양수산, 해운물류, 조선, 해양레저 산업의 정책 방향을 바로 잡고, 부산의 해양 신산업, 미래 먹거리 등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태/기자



## 경북도의회, 관광택 의원 발의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관광택 도의원 대표 발의안, 상임위 심사 거쳐 본회의 통과해



경북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관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여 심의한 건의안의 주문(主文)은 “전국 17개 시도 대비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필수 의료기본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경북의 의료 환경은 지나치게 취약하고 각종 의료지표

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국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며,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적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과 의료기본권에 근거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가 유사한 내용의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경북 지역대학교 중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유치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돼 지역민의 기대가 한껏 고양됐다.

배남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와 발맞추어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의회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선연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북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 서울시의회'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첫 상임위 통과

### 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중 첫 상임위 통과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0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가 총 4,627명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가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3건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결정으로 보류된 바 있다.

최진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

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강서구를 비롯해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등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사실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장이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

적으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가을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약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



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진혁 의원은 “특히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전남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특별위원회, 어업인 의견 청취에 나서

### 여수지역 양식 어민들과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방문..애로사항 청취

전남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일)는 지난 9월 7일 여수 예술랜드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상황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전남도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 권장주 단장,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이경식 지부장, 어업인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애로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도 권장주 단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이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방류 전·중·후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고, 직거래 장터 운영, 소비 캠페인 등 수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여 수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원 이경식 지부장은 “소비자들의 수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한 장비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정일 위원장은 “지난 8월 24일을 시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도달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명절 앞두고도 시름을 앓고 있는 어업인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

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 등을 시행 중이지만 진정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같은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수산물에도 도입되어 수산·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강정일(광양2), 손남일(영양2), 박성재(해남2), 신의준(완도2), 한춘욱(순천2), 박선준(고흥2), 정길수(무안1), 최동익(비례), 최정훈(목포4), 모정환(함평)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피해 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지원' 주제로 논의 "유보통합 시범운영 혼란 줄이려면 의지 갖고 논의 거듭해야"

## 11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정담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사)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의 '영아 대상 급식비 지원 요구'를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비롯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소속 보육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염 의장은 영아와 유아 사이의 지원 격차 발생 등 '유보통합(유아보육·교육 통합)' 시범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염 의장은 지난 11일 접견실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 등 임원진 9명을 비롯해 도 보육정책과 및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간부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2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6개월분을 편성에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유치원생 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장경임 회장은 "도내 영아 17만5천 명에게 질 좋은 급식을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동일하게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도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차액 배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보통합 추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과정을 안정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단계에서 겪었던 갈등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해 언급하며 "지금은 또 한번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어린이집의 열악하고 절실한 환경과 도 및 도교육청의 현실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려면 의지를 갖고 논의를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즉각적으로 답을 주기도 어렵지만 그럴수록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이 소통에 집중하고 도민을 위로하며 격려해야 한다"라며 "도의회도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공유하며 도민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 완화를 목표로 '급식비 지원'과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23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항일 창작 쇼케이스 진행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다가오는 9월 15일 '2023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의 하나로 '항일 창작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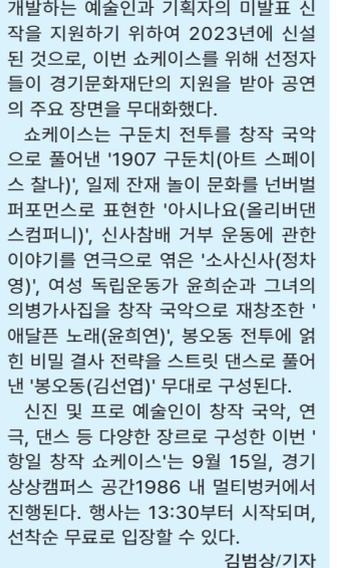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시행하는 '2023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맥을 이어 추진되는 사업을 통해 공모사업의 가치에 공감하는 여러 예술인 및 기획자가 선정됐고, 경기도의 일제 문화잔재 청산,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 및 애국·항일 정신 등을 소재로 역사 인식을 고취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항일 창작 쇼케이스'는 본 지원사업의 '예술창작-준비' 분야에 선정된 다섯 단체의 무대로 구성된다. '예술창작-준비' 분야의 경우, 새로운 항일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는 예술인과 기획자의 미발표 신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신설된 것으로,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선정자들이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연의 주요 장면을 무대화했다.

쇼케이스는 구둔치 전투를 창작 국악으로 풀어낸 '1907 구둔치(아트 스페이스 찰나)', 일제 잔재 높이 문화를 년별 퍼포먼스로 표현한 '아시나요(올리버덴스컴퍼니)',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엮은 '소사신사(정자영)', 여성 독립운동가 윤희순과 그녀의 의병가시집을 창작 국악으로 재창조한 '애달픈 노래(유희연)', 봉오동 전투에 얽힌 비밀 결사 전락을 스트리트 댄스로 풀어낸 '봉오동(김선업)' 무대로 구성된다.

신진 및 프로 예술인이 창작 국악, 연극, 댄스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이번 '항일 창작 쇼케이스'는 9월 15일,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내 멀티방커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13:30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2023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

항일 창작 쇼케이스  
아트스페이스 찰나·올리버덴스컴퍼니·정자영·유희연·김선업

2023.9.15. 13:30~18:00  
경기상상캠퍼스 멀티방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발의 조례 개정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국민의 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2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기준을 완화하고 자격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 소형자동차종합 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기준 완화(현행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 자동차종합

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 범위 확대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원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소규모 업체들은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었으며,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자동차 소규모 업체의 고용 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 필요한 자격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정비업체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반영된 예산 감액 하지말고 현장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것" 道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적

###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어린이집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에 열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된 예산 감액 하지말고 현장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평생교육국은 2023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5천만원을 교류 협력을 맺은 중국 광둥성 예산 미수입으로 인해 전액 삭감했고, 여성가족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9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해 대

규모 감액 편성했다.

국중범 의원은 평생교육국 심사에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국제교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라고 말하며 "그런데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기회가 사라지는 걸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심어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경험을 위해 교류 국가를 확대하고, 교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 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라고 말하며, "남는 예산을 감액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집이 더 이상 폐원하지 않고 지역의 보육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노력했으나, 시·군의 재정도 어렵고 유보통합이 예정되어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현장 중사들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홍원길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지역화폐 보안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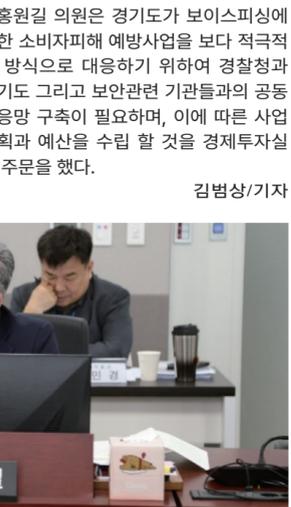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회의 경제투자실추경예산 심의에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용성 있는 계획수립과 집행'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화폐 불법유통, 위조, 보안시스템 강화의 필요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지능화되고,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했다.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3,900만 명(2021년6월 글로벌 게임 시장 전문 조사기관 뉴주(Newzoo)를 데이터인용)이며 점차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최근에는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한 접근과 피해자의 관심과 우려할 내용을 담아 인터넷링크를 첨부

부해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 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전화, 문자,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IT 업계와 금융업계는 이를 차단 또는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DMZ의 우수 가치 재확인, 접경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관광특화 상품 개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는 12일,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최대 규모로 37명의 경기도의원들이 DMZ의 우수한 장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DMZ를 활용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송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DMZ생태평화관광 인프라 조성, 접경지역 연계 관광-체류 상품화, 경기DMZ생태평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준환 의원은 "DMZ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임을 상징함과 동시에 평화와 화해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김범상/기자

DMZ생태평화관광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오준환 의원(국힘, 고양9)을 비롯하여 강홍철(국힘, 용인8)·김동영(더민주, 남양주4)·김숙순(더민주, 비례)·김창식(더민주, 남양주5)·김호경(국힘, 수원5)·서광범(국힘, 여주1)·성기환(더민주, 군포2)·안명규(국힘, 파주5)·양우식(국힘, 비례)·유영일(국힘, 안양5)·윤재영(국힘, 용인10)·윤종영(국힘, 연천)·윤태길(국힘, 하남1)·이경혜(더민주, 고양4)·이석균(국힘, 남양주1)·이용욱(더민주, 파주3)·이은주(국힘, 구리2)·이채명(더민주, 안양6)·이한국(국힘, 파주4)·조미자(더민주, 남양주3)·한원찬(국힘, 수원6) 의원 등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 위원뿐 아니라 허원(국힘, 이천2)·김영민(국힘, 용인2)·김영기(국힘, 의왕1)·서성란(국힘, 의왕2)·심홍순(국힘, 고양11)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김범상/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가 쌓은 정신건강사업 경험,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에 큰 울림 줄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가 지난 26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정신건강 사업 경험이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12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연 ‘정신건강 2.0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1996년 경기도 최초로 정신건강사업을 시작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건강 관련 센터 6개소를 운영하는 ‘정신건강 수도’라며 “부족한 인프라와 인력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정신건강 선도도시로서 정신건강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나눌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 정신건강사업단이 주관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홍창형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장이 ‘정신건강 2.0’을 소개하고, ‘수원시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의학채널 비운위 홍해걸 대표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특

## 수원시, ‘정신건강 2.0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별강연을 했다. 홍창형 센터장은 “정신건강 2.0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정신건강사업 등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이 행복하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했고,

ACT(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며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창형 센터장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는 신윤미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손상준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안병은 자살예방센터장, 이인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등 수원시 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ADHD(아동), 노인정신질환(노인), 자해 SNS(자살예방), 마약(중독관리)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 로비에서 ‘마로’ 앱 홍보체험관을 운영했다. 수원시보건소와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가 개발한 ‘마로’는 국내 최초 멀티 콘텐츠 기반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이다. 실제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검증한 상황·증상·진단 별 솔루션(해결책)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김범삼/기자

## 고양특례시, 2023년 공무원 근로자 신규 채용

### 9. 18. ~ 9. 22 응시 원서 제출...7개 직종 25명 채용 예정

고양특례시는 '2023년 고양시 공무원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7개 직종 2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9월 11일 고양시 누리집을 통해 채용 직종, 인원 및 채용 일정을 공고했다.

채용 시험은 공고일 이전 일 ('23.9.10.)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국인이면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제출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고양시 채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10월 7일 필기시험, 11월 2일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는 올해부터 공무원 근로자 신규 채용에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응시 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시는

채용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차 서류전형 등을 거쳐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2차 필기전형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환경관리원 등 5개 직종은 면접전형 전에 체력시험을 실시한다.

선발된 근로자는 2024년 1월부터 고양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무원 근로자의 결원을 충원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화성시, 재난현장지휘차량 및 드론 시연 행사 진행



화성시가 12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재난안전드론 연동시스템’이 구축된 재난현장지휘차량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시연회는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의 장비 소개, 화성중합경기타운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난 현장 대응 시연,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현장지휘차량 간의 영상회의, 드론을 이용한 경기타운 화재 현장의 영상 송출, 차량 외부 모니터를 통한 경보 방송과 현장 브리핑, 재난상황실과의 영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과 재난상황실 간의 즉각적인 소통과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시민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연회는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의 장비 소개, 화성중합경기타운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난 현장 대응 시연,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현장지휘차량 간의 영상회의, 드론을 이용한 경기타운 화재 현장의 영상 송출, 차량 외부 모니터를 통한 현장 브리핑 등으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자체 처음으로 현장과 재난상황실 간의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해 구축된 재난현장지휘차량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구축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성남시, 민선 8기 1년 도서관사업소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시정 브리핑 개최

### “균형 잡힌 도서관 인프라와 양질의 도서 확충, 휴식과 만남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진화”



성남시는 민선 8기 1년이 지남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주관으로 공약사업과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 및 언론인과 공유하기 위해 9월 12일 오전 11시 한누리에서 시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은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시대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변화하는 도서관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삶의 지식과 정보, 휴식과 만남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 잡힌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해 2024년 5월 고등도서관, 2025년 5월 수내도서관, 2026년 상반기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을 차례로 개관하고, 원도심 도서관 개관도 추진 예정이다.

개관한 지 20년이 지난 중앙도서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개방적·친화적인 소통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총총한 ‘도서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도서관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후 설비를 교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범삼/기자



## 안양시, 관내 기업 15곳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협약 체결

안양시는 12일 오후 2시 접견실에서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관내 기업 15곳과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은 시가 지난 달 16일간 진행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공모에 신청해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으로 ▲가온이앤씨 ▲주식회사 다사론 ▲데미크 사회적 협동조합 ▲주식회사 로보앤모어 ▲링크투어스(주) ▲주식회사 브레인아이에스 ▲주식회사 씨투 ▲에이스공조(주)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세미텍 ▲에이큐에이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레아이에스 ▲주식회사 이쿰텐트 ▲주식회사 효돌 ▲주식회사 한국평생교육원 ▲주식회사 해오 등이다.

## 우수기업 선정·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차액보전 지원사업 등 가점 혜택 제공

이들 기업은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회사 내구 내 모성보호제도 명시 등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실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및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15곳 기업에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을 제공하고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차액보전 지원사업, 안양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원사업 등의 가점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를 시작으

로 매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여성고용률, 모두가 경력중단 없이 일할 수 있

는 노동시장,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광명시,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첫 ESG 포럼 열어... ESG 행정 선도 도시로 도약

광명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ESG 친화형 스타트업과 ESG에 관심 있는 시민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ESG와 마주한 로컬 스타트업 이야기’를 주제로 ESG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생존전략이자 시대적 사명인 요즘 지속가능한 창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명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ESG 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ESG 스타트업인 (주)폼이즈와 (주)미앤드 대표는 시의 도움으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ESG 경영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박승원 광명시장, 카이스트 청년창업 투자지주 정희훈 대표, (주)후즈굿 윤덕찬 대표, (주)MYSC 김정대

## ESG 스타트업 사례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창업 정책 방향 논의

표가 패널로 참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와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ES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할 미래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생존이 최우선 과제인 스타트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는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사업, ESG 창업 아카데미 등

한발 앞선 ESG 정책 펼치고 있으며 ▲ ESG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ESG 경영 진단·컨설팅 사업 확대 ▲혁신 스타트업 육성 액셀러레이팅 ▲창업 투

자펀드 조성 등 창업 정책을 구상해 스타트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ESG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 인천시,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추석위해 민·관 협력

##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에서는 12일 시청 신관 5층 회의실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보내기를 위해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까지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소비가 물가지수가 최근 국제유가 반등 및 계절적(폭염, 호우, 추석) 요인으로 3%를 상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인천시와 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추석 명절 서민생활 밀집 품목(63개) 및 주요 성수품(20개)의 수급 및 가격 동향 파악을 위해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 체제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부서 과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전통시장 물가 상황과 원산지표시

및 (단위) 가격표시 등 정부 및 군·구 합동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구별로 지정된 물가모니터단은 명절 주요 성수품에 대해 주 1회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물가동향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인천상인연합회 이덕재 회장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과 함께 인천시의 물가안정 대책 및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으며, 인천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도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민 가계에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합리적 소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장바구니 걱정 없는 활력 넘치는 추석 명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구매(30만원→100만원) 및 캐시백 상향(5%→7%, 10%, 연매출별 상이) 등 '인천가족사랑 이벤트' 및 '인천e를 추석 선물 대전' 행사와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이벤트'(착한가격업소 1만원 이상 이용시 2천원 할인, 1인 최대 5회) 등 추석 명절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김충남/기자

# 용인특례시, 용인예술과학대와 반려동물 관련 교육 손잡았다

## 12일 '동물 복지·입양 촉진' 협약... '반려동물 교육협약'은 지자체 최초



용인특례시가 12일 반려동물 교육 관련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전문 인재 양성과 반려동물 입양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성식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용인예술과학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식 용인예술과학대 총장은 "전체 가구의 2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와 협력을 통해 시의 우수 시설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예술과학대학은 실외·실내 반려동물 훈련장을 갖춰 행동교정과 재활 교육이 가능하고 미용실습장에서는 현장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푸드실습실에서는 펫푸드와 영양식 제조 등을 교육한다. 반려동물 응급개발, 제조실습을 하는 응급개발실도 갖췄다.

시는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용인예술과학대와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하면서 모범적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반려동물 복지기능 강화와 입양 촉진 ▲학과 강의 시 유기동물 보전, 훈련·미용 등

진행 ▲청소, 산책 등 사회적 훈련의 주기적 진행 등 학생들의 주말 동물보호센터 돌봄 자원봉사 ▲학생의 유기동물 임시보호 진행 과정 SNS 공개를 통한 입양 장려 ▲유기동물 기본행동 교정을 위한 교육 훈련 ▲반려동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이다.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는 입양률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5.2%로 전국 평균 31% 대비 높고 안락사율이 6.6%로 전국 평균 14%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반려동물 입양 시 검진·진료 등을 위해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등 입양 시스템과 동물보호 시설, 방역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교육 관련 사업협약은 전국에서 최초로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의 잘 갖춰진 시설에서 반려동물이 미용과 훈련 등을 통해 거둔다게 되면 입양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눈 건강 프로젝트 EYE(아이)지켜DREAM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X (주)휴비츠 X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한 학교 밖 청소년 안과 검진 및 안경 지원 행사 진행

부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5일 (주)휴비츠,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건강검진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과 검진 및 맞춤형 안경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주)휴비츠의 안과 검진 장비가 갖춰진 이동형 버스에서 학교 밖 청소년 31명에게 안과 검진과 맞춤형 안경을 제작하여 제공했다.

눈 건강은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계기가 됐다. 휴비츠 관계자는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력 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부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 복지, 자립 등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 광주시,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 응대 교육 실시

광주시는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전 직원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던 전화전환 모니터링을 통해 대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했던 계획의 연장선으로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인의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대화의 기술, 경청과 공감을

이끄는 방법 등 일선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마음건강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친절한 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안산시, 대표 가을축제 잇따라 개막

## 6년 만에 돌아온 대부포도축제부터 김홍도축제까지 안산에서 즐기자



아울러, 코스 내 가위바위보,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해 걷기의 매력과 즐거움을 더해주고, 축하공연, 이벤트 게임 등 부대행사와 가전제품,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 안산마라톤대회'가 9월 17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부도에서 안산대부포도축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여느 대회보다 즐길 거리가 풍성한 대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회 종목은 하프 코스(21.0975km), 10km, 5km 등 3개로 치러지며, 참가자 전원에게 쌀(3kg)을 비롯해 행사 당일 대부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완주 메달 등이 기념품으로 지급된다. 또, 자동차·냉장고·TV 등 풍성한 경품행사와 함께 가수 박상민, 미스터방 등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부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달리는 꿈의 레이스로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위드스즈약 2023 민속씨름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및 제3회 안산 김홍도 여자장사씨름대회'가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間に 걸쳐 올림픽기념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단원 김홍도

의 도시 안산은 앞서 지난 2020년 7월 김홍도장사 씨름대회의 안산시 개최를 위해 대한씨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0년 10월 첫 대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7일 오는 2024년까지 대회 유치 연장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대회는 남·여 26개 팀에서 200여 명(남자부 18팀 150명·여자부 8팀 50명)이 참가하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열전을 벌이며, 경기는 MBS SPORTS+ 스포츠 채널 및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여자부 경기에서는 여자 씨름 명가 자리를 지켜온 안산시청 씨름단이 출전해 단체전과 장사결정전에서 다관왕을 노린다. 안산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제4회 김홍도축제'—올 가을, 김홍도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김홍도는 18세기 영·정조시대 문예부흥기의 중심지였던 안산에서 스승 표암 강세황으로부터 학문과 그림을 배웠으며, 풍속화부터 왕의 어진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그림을 그렸던 안산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10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막을 여는 개막식은 주제공연 '단원 김홍도', 안산디자인문화고 댄스팀, 한국뮤지컬어워드 대상에 빛나는 가수 차지연의 축하공연으로 꾸며진다. 폐막식 또한 지역 예술 공연팀 '디스이즈 잇'의 김홍도를 주제로 한 LED 트론댄스, 안산 출신 가수 광영관, 김홍도와 신윤복을 주제로 한 드라마 '바람의 화원' 주제곡을 불렀던 가수 조성모의 공연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특히 단원 김홍도의 일생과 그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거리로 나온 김홍도 미술관 ▲단원각 미디어퍼사드를 선보인다.

아울러, 늦은 시간 행사를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축제를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김홍도의 작품을 새롭게 만나는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원 김홍도 야행—80A(夜) —과 같은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홍이 포토존 및 청사초롱 등 경관조명으로 다양한 불빛과 포토스팟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홍도 마을 ▲김홍도 마당극 ▲전통놀이타와 같은 전통과 풍속 체험, 놀이 프로그램도 변함없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8월 21일 2023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얼리버드 티켓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뜨거운 예매 열기를 보이며 3시간 만에 매진을 기록했다.

경기도·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2023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식 티켓은 현재 인터파크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로 태어나 세상을 쥐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인디신(Scene)에서 음악을 시작하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2023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이승환 밴드, 전인국 밴드, LUCY, 크리앙트, 경서 밴드, 이근형(작은하늘), 매서드, 나상현씨 밴드, 네미시스, 화노, 이무진, 데이브레이크, 터치드, 너드커넥션, SURL, 기프트, 몽돌, SHAUN, 손애플, 카디, 글렌체크, 크랙샷, 레이저본, 불고기디스코, 스킵재, 동구 등 26개 팀의 인디뮤지션과 인디스페이스 결선에 오른 더 픽스, 사운드힐즈, 왓에버댓, 원디비(1DB), SEMA 등 5개 팀, 오픈 스테이지 8Train, UN, Funkin CAT, SEESA, yunji, QUIBBIE, RB, CONG VU, GCM 등 9개 팀까지 총 40팀이 무대를 꾸민다.

이민근 시장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인디뮤직페스티벌 2023 오픈 티켓 예매의 인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공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안전한 축제 진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산시는 7일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마쳤다.

심의에서는 지역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하는 한편, 축제 개최 전 시설물, 전기, 소방, 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꼼꼼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 및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부/기자

#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서 최고 '가' 등급 4곳

## 사회서비스원·청소년미래재단·환경산업진흥원·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도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과 혁신을 위해 13개 출연기관과 의료원을 포함한 15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한 결과,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미래재단 등 4곳이 '가'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2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전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로 구성된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균 88.09점으로 지난해보다 0.86점 올랐다. 기관장 대상 성과평가 결과 평균 89.76점으로 지난해보다 0.36점 소폭 하락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2022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했다. 기관별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CEO) 성과평가로 나눠 리더십, 경영시스템, 자치단체 정책 준수,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 지표로 각 기관의 경영성과를 심층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경영평가가 일률적 지표로 진행돼 각 기관의 전문성이나 특색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는 기관별로 운영사업에 대한 정량 및 정

성 평가지표를 다르게 정하고, 그에 따른 경영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출연기관의 경영혁신과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이 이뤄지도록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7개 기관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4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이 늘었다. 전년보다 1등급 상승한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은 전년 경영평가에서 제안했던 재정 강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미흡했던 사항에 대응한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녹색에너지연구원도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 사업 및 기능 조정을 통한 조직변화 등 분야별 적절한 조치로 우수

한 성과를 달성했다. 다양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CEO) 성과평가에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기관장평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전남도관광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균 점수는 전년보다 0.36점 하락했다. 이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비전에 관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남도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10월까지 기관별로 미진한 부분의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인 공사·출연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산하 공공기관이 지속해서 경영을 효율화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 지난 11일 300명의 복지종사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재도약 다짐

순천시는 지난 11일 노관규 순천시 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사회복지종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에 대한 의미를 새기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다.

이날 기념식은 'Origin,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회복지!'란 주제로 2부로 나눠 유공자표창, 순천형 사회복지선언, 주제 퍼포먼스, 사회복지종사자 릴레이 강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1부는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다양한 분야의 복지현장을 담은 영상

를 관람하고 순천형 사회복지 선언, '전환과 역동의 시대! 사람으로 모두(do) 및 (it)다!'는 슬로건을 공개하며 사람중심의 온전한 사회복지 실천과 복지미래를 위한 재도약을 다짐했다.

또한 2부에서는 '우리들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란 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나눔 강연을 통해 복지현장을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 참여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위기를 발판 삼아 재도약을 꿈꾸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통해 복지현장에서 누구보다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 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134만 주민 서명부' 국회 전달

전남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소속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방사능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기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며, 그 결과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134만 519명

## 전국원전동맹,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



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목표와 초과 달성한 바 있다.

김영진/기자

# 남원시 사회적경제 선물 세트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 남원시, 추석맞이 사회적경제기업 특판전 '공감마켓' 개최

제품명	가격	제품명	가격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특판전 '공감마켓' 개최	10,000원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특판전 '공감마켓' 개최	10,000원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특판전 '공감마켓' 개최	10,000원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특판전 '공감마켓' 개최	10,000원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특판전 '공감마켓' 개최	10,000원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특판전 '공감마켓' 개최	10,000원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경제기업 선물세트 특판전을 개최한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14개소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14일(목) 11시부터 15시까지 남원시청 로비에서 일일 홍보 장터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상생의 따뜻한 가치를 담은 추석 선물세트 총 40여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남원지역의 청정한 농산물을 가공한 떡, 강정, 유기농 누룽지, 수제 쿠키, 참기름, 도토리묵, 추어탕, 김부각, 전통주와 수제 맥주세트 등이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되어 현장 구매와 택배 예약 모두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남원시마을기업협의회가 6개 마을기업 제품을 한 세트에 담은 '마을기업 행복 꾸러미'를

선보이며, 잡화꿀, 들기름과 같은 양념류와 한과, 강정 등의 간식류가 함께 들어있어 1~2인 가족에게도 적합하고 다양한 제품을 맛볼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 (주)비즈양조는 직접 도정한 쌀로 담은 '13% 프리미엄 비즈 탁주'를, 예비사회적기업 (유)하이오백은 네이버 해피빈 펀딩 4주만에 전국 600여명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인기리에 판매된 '지리산 금부각'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판전이 지역 순소한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4년 연속 수상

## 지난 3년 최우수상 수상, 올해 우수 기관 표창 받아

완도군은 지난 9월 8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월 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 증가율 등 3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으며, 완도군은 총 80.2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이월 체납액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5.5%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체납 사실을 알려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우수 기관 표창으로 받은 상사업비는 체납 징수에 노력해 준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해 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영율/기자



# 나주시, 무진의료재단 임직원 일동, 나주시 고향사랑기부 참여

## "지역 상생발전에 답례품까지...직원 복지 혜택으로 제격"

전라남도 나주시는 의료법인 무진의료재단 김재택 이사장이 운영하는 화순현대요양병원과 화순현대노인요양원 임직원들이 나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무진의료재단이 임직원 100여 명에게 인센티브로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고, 임직원들은 다시 나주 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로 무진의료재단은 '지역상생 발전'과 '직원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챙겼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 기관·단체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은 "추석을 맞아 직원 복지 혜택을 고민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생각해 됐다"며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담 없이 각각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이에 윤병태 시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이와 같은 소액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며 "보

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기부금은 보다 가치있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시는 홍어, 나주곰팡, 국립숲체원 체편권 등 기존 30개 답례품에 4개 품목(온국채이크, 파우치형배즙, 나주배발랑, 에다손 떡 선물세트)을 추석 명절 전에 추가로 선보일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김영안/기자



### 구례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삼대삼미 도시재생대학 2기과정'수료식 개최

전남 구례군은 9월 8일 구례군 노인복지회관에서 '2023 삼대삼미 도시재생대학 2기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2기 교육은 6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총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구례군은 임원자 곡성군 옥방마켓협동조합 조합장, 최영민 아이케어해유 협동조합 대표, 주현진 더မ် 대표, 김의화 우아디자인 대표 등을 강사로 초빙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 성공사례 등을 깊이 있게 교육했다.

또한 군은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원시 구암지구 도시재생 통합센터 등 선진지 견학 프

로그램과,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굴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대상지 내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케이푸드 메카 전북,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본격 시동

### 전라북도 푸드테크 정책 추진에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인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통해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대학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식품기업을 계약해 산업체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고 식품기업 임직원을 석사급 기업 수요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식품기업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지난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전국 4개소 중 최다인 2개소를 전북이 확보하여 도내 식품 기업도 푸드테크 전문교육을 가까운 전북대와 전주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계약학과 교육과정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시·군 연구소 등 농생

명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푸드테크, 케어푸드, 간편식,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패키징, 품질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2개 대학의 전문교수진, 농생명기관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게 되며 석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40명이 배출돼 우리나라 푸드테크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하 전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 "푸드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도내 식품기업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통해 푸드테크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고자 국책사업 발굴 등 'K-푸드 메카 육성'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푸드테크 42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이달달 21일 출범식을 갖는다.

이남출/기자



## 진도군, 추석맞이 꽃이 피어나는 향아리공원 조성

###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백일홍과 메리골드 등 꽃공원 조성



진도군은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회원들과 군내면 향아리공원에 꽃밭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향아리공원과 주변 도로의 잡초를 제거하고 백일홍, 메리골드 등 추석맞이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했다.

또 꽃밭 조성과 함께 공원 주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실시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향우와 관광객들에게 꽃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쉼터 마련에 힘썼다.

특히 내년에는 길가 공터에 메밀꽃종자를 파종해 활짝 핀 흰 메밀꽃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진/기자

## 목포문학박람회, 한국문학을 빛낸 목포출신 거목 집중 조명

### 문학박람회 주제관에서 김지하 강연 및 특별전 개최

'2023 목포문학박람회'가 한국문학을 빛낸 목포 출신 한국 문학의 거목(巨木)들을 집중 조명해 목포문학을 널리 알린다.

목포문학박람회는 한국 근대문학 선구자를 대거 배출한 목포문학의 태생지인 북교동(차범석길) 일원에서 오는 14일 골목길 문학관으로 문을 연다.

특히, 목포문학관 일대에서는 오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학과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 '4인4색 문학제'는 '김우진.김현의 날'(16일), '차범석.박화성의 날'(17일) 등으로 구성된 작가 조명 프로그램으로 거목들의 세계로 안내한다.

또한, 목포문학박람회 주제관에서는 오는 15일(오후 2시 30분) 시인 김지하의 삶과 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나의문학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의 강연과 김지하의 시를 소리공연으로 보여줄 임진택 소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에는 김지하 특별전이 열리는데 15일에는 유홍준 교수가 직접 김지하의 작품에 대한 해설을 진행한다.

16일 '김우진.김현의 날'에는 김우진 문학제와 김현 문학축전이 개최된다.

남교소극장에서 열리는 '김우진 문학제'(오후 2시)는 김우진 희곡, 시와, 산문 등의 작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되며, 목포를 배경으로 한 김우진의 희곡 '이영녀'의 연출가와 배우가 출연해 김우진 연극제작자 좌담회를 갖는다.

목포문학관에서 열리는 '김현문학축전'(오후 2시)은 '김현으로부터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김현 비평에 대한 심포지엄, 시노래 콘서트, 김현문학아카이브전, 김현문학카페 등이 열린다.

'차범석.박화성의 날'(17일)에는 차범석학술대회와 박화성문학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남교소극장에서 열리는 차범석학술대회는 호남 극예술 학술대회, 내가 만난 차범석 강연이 개최된다.

또한 북교동 일대에서는 차범석의 전원일기 이야기(15일 오후 7시), 박형성의 노래가 있는 차범석 여행(16일 오후 6시 30분) 토크와 뮤지컬(박해미, 박건형, 오혜원)이 진행된다.

남교 소극장 창고에서는 오는 16일과 17일(오후 6시) 차범석 연극 별은 밤마다가 공연된다.

'박화성 문학페스티벌'(12:30)에는

박화성의 작품 서사 등 작품세계 조명 학술대회, 정명여중학생들과 함께하는 내가 읽은 박화성 토크 등이 펼쳐진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은 목포문학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문학을 빛낸 목포출신 거목을 집중 조명해보는 4인4색문학제 등 다양한 연극,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예향 그리고 문향으로서 목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될 것 이다"고 밝혔다.

목포문학박람회는 '작가를 꿈꾸는 문학유토피아'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북교동 일대에서 전시, 행사, 공연 등 12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종배/기자



## 화순군 2024년 본예산 편성 본격 돌입

### '건전재정 운영,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목표

전남 화순군이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에 돌입했다.

화순군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으로 잡고, 9월11일 실과소 및 읍면 예산 업무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편성 방향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 편성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성장 동력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내년은 국제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듦 전망이어서 더욱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지 않은 영(0)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에 준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 강진군이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 모색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강진 착한한우 명품관에서 강진군 한우협회와 한우산업 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강진 한우산업 새로운 도약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한우인의 소득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윤순성 강진군 한우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한우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거세우 계획 출하, 저능력 암소 선제적 도태, 송아지 번식에 신중을 기하는 등 한우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과 한우협회는 훌륭한 유전자원을 갖춘 우량암소가 낳은 우량송아지를 가능한 관내에서 사육 및 거래하고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가치를 고기능으로 확대해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 조절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육용 암소 시장을 육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강진 한우산업 새로운 도약 모색

### 강진군-한우협회 발전방안 간담회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진 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을 위해 애쓰는 한우협회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과 함께 한우산업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핵심동력이 돼 달라"고 말했다.

윤순성 강진군 한우협회장은 한우인들의 소통과 화합 단결을 강조하며 "한우협회가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각종 수급불안 상황에 대비해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1등급 출현율 향상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024년 한우산업 신규 정책을 발굴중이다.

강진군 한우협회는 지난 2013년 9월 출범해 군 한우협회와 읍·면 한우협회로 조직돼 있으며, 회원은 총 420명이다.

추성호/기자



# 경북도, 재난 예방과 도민 안전 위한 선제적 점검 총력!

## 9.12~10.31일까지, 도내 취약시설 349개소 안전 점검 실시



경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가을철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9.12~10.31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지난달 27일 발생했던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1톤 트럭 추락사고(부상 12명)와 같이 주차장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용객 증가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점검한다.

대상 시설은 주차장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유도선, 지역축제, 공연관람시설,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농산물도매시장 등 취약시설 349개소이다.

점검 방식은 도 표본점검을 병행하되 시군 및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며, 안전관리 실태와 현실성 있는 비상 대응체계 확립 여부 등 시설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해 조기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 이용자가 많은 취약시설을 사전에 개선해 단 한 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재)대동문화재 연구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 100호분에서 개토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 100호분 발굴조사 '개토제' 개최

### 대구 북구청·(재)대동문화재연구원 / 09.12. 오전 10시 30분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지난 2018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된 이후 북구청에서는 56호분 재발굴조사를 시작으로 58호분, 5호분, 304호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고분의 순차적인 봉분 정비도 진행 중이다.

이번 발굴조사의 대상인 100호분은 구암동고분군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남쪽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100호분은 직경 25m 이상의 대형 고분으로 2015년 실시한 정밀지표조사 상에서 101, 102호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약 10개의 도굴갱이 확인되어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한 발굴을 통해 봉분 복원 정비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단은 본격적인 정밀발굴조사에 앞서 100호분 주변 벌목 등 사전 작

업을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다른 고분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와 입지 등을 통해 볼 때 무덤의 주인공이 높은 지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구암동 고분군 100호분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북청은 조사단과 협의하여 발굴 현장의 주기적인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사적 지정 이후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한 대형 고분은 이번 100호분을 끝으로 일단락이 되는데 앞으로는 발굴이 완료된 고분의 복원에 초점을 맞춰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향후 팔거산성



과 함께 구암동 고분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김동현/기자



청송군은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9월 5일 ~ 10월 31일까지 “찾아가는 한방사

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진보면 각산리, 현동면 돌인3리, 파천면 지경리 경로당

## 청송군, 경로당“찾아가는 한방사업”운영

(3곳)을 중심으로 매주 화, 수요일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의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1:1 건강 상담과 침시술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완화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한방사업”은 어르신들의 주 생활터인 경로당을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

병증 예방, 일상생활과 자립능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의료적 접근이 어려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한방건강사업의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올로(YOLO) 갈맷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 운영 개시

### 11.30까지 주말, 달빛, 수도권 시민 초청 팸투어 등 6개의 갈맷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사하구 다대포 낙조분수 야외광장에서 '올로(YOLO) 갈맷길 함께 걷기' 개최식을 열고, 11월 30일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YOLO 갈맷길 함께 걷기'는 갈맷길 걷기 여행 프로그램으로, 시민, 국내외 관광객, 외국인 누구나 갈맷길 전문 트레킹 가이드와 함께 테마별로 부산 갈맷길을 걸여볼 수 있다.

'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과 함께 올로 갈맷길을 향유하며 걷자'라는 콘셉트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규 갈맷길 코스 걷기 ▲올로(YOLO) 갈맷길 테마 걷기 ▲달빛 갈맷길 테마 걷기 ▲함께 갈맷길 걷기 ▲주말 갈맷길 원정대 ▲갈맷길 팸투어 등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사하구 다대포 낙조분수 야외광장에서 '올로(YOLO) 갈맷길 함께 걷기' 개최식을 열고, 11월 30일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YOLO 갈맷길 함께 걷기'는 갈맷길 걷기 여행 프로그램으로, 시민, 국내외 관광객, 외국인 누구나 갈맷길 전문 트레킹 가이드와 함께 테마별로 부산 갈맷길을 걸여볼 수 있다.

'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과 함께 올로 갈맷길을 향유하며 걷자'라는 콘셉트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규 갈맷길 코스 걷기 ▲올로(YOLO) 갈맷길 테마 걷기 ▲달빛 갈맷길 테마 걷기 ▲함께 갈맷길 걷기 ▲주말 갈맷길 원정대 ▲갈맷길 팸투어 등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이중 '갈맷길 팸투어'는 수도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홍보함과 동시에 걷기여행의 관광 자원화 연계로 부산 갈맷길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인 '함께 걷기'의 취지에 맞게 '함께 갈맷길

걷기', '주말 갈맷길 원정대' 테마를 마련해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개최식은 주말원정대 등 올로 갈맷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수단 입장 ▲환영사 및 축사 ▲깃발 전달식 ▲출정물품전수 ▲가이드물품 증정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개최식 이후 올로(YOLO) 갈맷길 7코스(선셋 갈맷길 피크닉)를 걷는 'YOLO 갈맷길 함께 걷기' 행사에 연이어 참여해 갈맷길의 매력을 만끽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부산시 갈맷길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갈맷길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산이자 시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 갈맷길을 시민, 국내·외 관광객, 외국인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글로벌) 트레일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2023 하반기 갈맷길 함께 걷기**

대한민국 행정 최초 갈맷길 공공서비스

부산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맷길 걷기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은 트레킹가이드 '갈맷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갈맷길을 걸을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 2023. 9. 15.(금) ~ 11. 30.(목) (매주 수시 운영)

**운영장소** 부산 갈맷길 전구간 & 올로 갈맷길 10개 구간

**프로그램** 총 68회 운영(하반기) 참여대상 누구나

**접수방법** 부산시 갈맷길 함께 걷기 홈페이지 (www.galmatgil.kr)

구분	대상	운영구간	운영횟수	내역
정규 갈맷길	시민	정구간	23회	30
	시민	YOLO 10코스	10회	40
달빛 갈맷길	시민	포근포스	3회	40
	시민	YOLO 10코스	5회	30
가이드가이드	시민	대동 10구간	10회	15
	시민	대동 10구간	10회	15
주말 갈맷길 원정대	수도권, 강원지역	대동 10구간	10회	15
	수도권, 강원지역	정구간 2, 3코스	7회	21

**문의처**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051-780-1234) / 갈맷길 홈페이지 (www.galmatgil.kr) / 갈맷길 앱 (www.galmatgil.kr)

**부담금** \* 60대 이상 어르신은 갈맷길 걷기 여행에 필요한 갈맷길 걷기 용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60대 이하 어르신은 갈맷길 걷기 여행에 필요한 갈맷길 걷기 용품을 유료로 제공합니다.

**예약신청** \* 갈맷길 걷기 여행에 참여하시려면 갈맷길 걷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갈맷길 걷기 여행에 참여하시려면 갈맷길 걷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영양군,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눔ON! 얼룩OFF! 뽀송뽀송 빨래세탁 지원 사업』



영양군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2일 오전 10시 영양읍에 위치한 아쿠아워시 셀프 빨래방에서 『나눔ON! 얼룩OFF! 뽀송뽀송 빨래세탁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부피가 큰 이불을 세탁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 세탁이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 30가구를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노인맞춤돌봄생활관리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해 세탁 및 건조, 배송까지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세탁물 수거부터 빨래, 건조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배달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지역의 부족한 복지지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어 효율적인 민관 협력 사업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불을 전달받은 김○○(만92세) 어르신은 “이불을 세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묵은 이불을 깨끗하게 세

탁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며 감사사를 전했다.

강영길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이불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보람된 봉사활동이었다.”

며 “앞으로도 입암면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적극 독려'

### 65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자) 무료 접종 지원

안동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기침 시 비말로 전파되며, 폐렴,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병 빈도가 높고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을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은 불필요하나, 23가 다당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1회 무료 접종받으면 된다.

김경숙 감염병대응과장은 “독감 예방접종과 겹치지 않게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질병관리청**

심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해당지역도우미 누리집(https://np.nidca.go.kr) 또는 미동선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 항목 수칙**

1. 건강상태가 좋거나 예방접종 허가
2. 보호자와 상담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및 개인방역 수칙 준수
4. 대상자, 보호자는 20-30분 이상 대기 후 접종
5.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아무런 이상반응 관찰 후 무가)

# 경북도, 제12회 전국신장장애인 지도자대회 개최

### 신장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과 사회적 관심 확산



경북도는 13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산하 13개 지역협회장과 38개 시군 지부장, 실무자 및 내빈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전국신장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신장장애인지도자대회는 전국의 신장장애인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 현장의 임직원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별로 순회하여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협회(안동)에서 대회를 개최

하게 됐다. 대회를 주관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는 신장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단체다. 도내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병원이동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장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식과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교육, 경북도의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화하마를 일대 문화탐방까지 1박 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10만여 신장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해 전국 임직원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신장장애인협회의 발전과 신장장애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들, 경주시 상생 위해 힘 뭉친다

### 해오름동맹 도시단체장·기업인 150여 명 참석, 정보 교류하며 협력 방안 모색

경주시가 12일 포항·울산과 함께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 혁신 포럼'을 포항공대에서 개최했다.

포항공대 내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해오름동맹 도시(경주·포항·울산)의 단체장과 벤처·창업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포럼은 해오름동맹이 주최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포럼으로 3개 도시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앞서 해오름동맹은 산업·R&D, 문화·교육, 도시 인프라, 농·축산 4개 분야에서 30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유일한 행사로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올해가 3회째며 2019년 울산, 지난해 경주, 올해 포항 개최하면서 동맹 도시 첫 순회를 마쳤다.

포럼은 하상용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회장의 강연, 3개 도시별 기업 우수사례 발표, 체인지업그라운드 투어, 비즈매칭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 우수사례 발표에서 경주는 (주)영

각유전이 한우수정란연구개발과 생산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제품 전시에서는 경주는 (주)다델의 포도 키오스크, 창의융합과학(주)의 초등생 교육용 SW·로봇, (주)공간안전기술의 추락알림장치 등을 선보였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기업과 지자체·유관기관의 비즈매칭을 개최하며 사업 분야별 행정·지원기관 담당자가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

원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 도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는 벤처·창업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포항, 울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해오름동맹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 부산시, 부산형 소아의료 민·관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9.13. 19:00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부산의 소아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부산시는 오늘(13일) 저녁7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형 소아의료 민·관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소아의료 민·관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소아 의료체계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시 소아 의료체계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지역자원 연계 협력망(네트워크) 강화로 거점별 정보 전달, 동향 파악 등을 하기 위해 지난 7월 발족했다.

협의체는 부산시,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시교육청, 시내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민간종합병원, 유관·시민단체 등 소아 의료분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구성 후 첫 회의로, 소아 응급의료 기반시설(인프라) 부족과 지역 내 소아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 그리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과 연계한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으로는 긴급상황 등 필요하면 즉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대면 또는 서면 회의 형식으로도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 소아의료 현황 실태 공유 ▲2024년도 신규사업 안내, 향후 세부 추진방안 논의 ▲참석자 의견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의 주재로 부산

소방재난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를 비롯해 부산의료원,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달빛어린이병원장, 아동병원협회장, 부산YWCA,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총 19명의 민·관 관계자가 한데 모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시는 내년도 신규사업인 ▲아동병원 휴일 순환 당번제 운영 지원과 ▲필수진료과 전공의 양성 지원에 대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전국적인 소아환자 감소, 어린이병원 저수익구조로 인한 적자 누적 발생, 이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소아진료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소아 응급환자 진료기반 확충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완결적 필수·응급 의료체계 구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5월에는 부산형 야간·휴일 소아응급 의료체계 구축 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경증, 중등증, 중증 소아환자를 구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단계별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증) 달빛어린이병원 ▲(중등증) 대학병원 ▲(중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동네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환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곳(동래, 연제, 기장)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는 영도구에 1곳을 확대 지정해 총 4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병원급 이상 24시간 소아응급진료 기관과 소아중증응급환자 치료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소아응급진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녀를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모여 문제 인식을 함께 하고 우리가 실정에 맞게 다 같이 소아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번 부산형 소아의료 민·관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유관기관·단체가 서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합심해 더욱 탄탄한 부산형 야간·휴일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울진군 남부도서관, '제7회 가족 독서골든벨' 행사 성료

###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한 가족 친화 & 독서 문화행사

울진군은 9일 울진 군민체육관에서 진행된 '제7회 가족 독서골든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총 35가족 120명이 참여했다. 주제로 선정된 도서와 울진군에 대한 퀴즈를 풀어 우수 성적을 거둔 가족들이 수상하는 방식으로, 최우수 1가족, 우수 3가족, 장려 5가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김소연 가족이 수상했으며 수상자 가족은 향후 문화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16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대면 행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퀴즈에 대한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고, 천사 오카리나 앙상블, 달빛 울림의 악기 공연까지 어우러져 더욱 다채

로운 행사로 마무리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책 읽기를 통해 가족이 화합하여 문제를 푸는 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경험과 재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예천군, 추석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안전한 예천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 등 꼼꼼하게 점검

예천군은 13일 오후 2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추석 대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상설시장, 중앙시장, 맛고을시장 등 전통시장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 소방·전기·가스 등을 점검했으며 미흡한 부분은 명절 전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에 이어 안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가정용 자율점검표 및 다중이용 시설 자율점검표를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 제8회 영덕군수배 전국 탁구대회 성료



영덕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덕군탁구협회가 주관한 제8회 영덕군수배 전국 탁구대회가 9일과 10일 이틀간 영덕군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탁구대회는 전국 각지의 탁구 동호인 등 5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속에 선수 개인 및 소속팀의 기량을 겨루고 돈독한 우의와 화합을 다졌다.

9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김서규 체육회장, 윤혁진 경상북도탁구협회장, 황창식 영덕군탁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탁구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KRX한국거래소 프로탁구단 소속의 유남규 감독과 주장 김동현 선수가 자리를 함께해 대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번 대회는 남녀별로 개인 단식, 개

인 복식, 단체전으로 나뉘 치러졌으며, △상급 남자 단식 민태홍(어벤져스) △상급 여자 단식 황지미(버터플라이) △중급 남자 단식 이재영(O.TAK) △중급 여자 단식 안현연(68코라이) △초급 단식 신해순(오십천) △복식 전기성·박진환(어벤져스) △상급 단체 이진호·이규범·김예종(의성MS) △중급 단체 김동훈·전종현·박광렬(울진연호C)이 각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탁구 애호가들의 축제에 자리 잡은 영덕군수배 전국 탁구대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열정과 스포츠맨십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며, "이번 대회의 성공을 발판으로 지역 탁구 활성화와 탁구 발전에 더욱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오는 22일부터 개최되는 제33회 경북생활체육대축전 출전은 물론, 하반기 개최되는 각종 생활체육과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철저히 준비해 지방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장문화/기자



# 구미가 낳은 동편제 소리의 거장, '명창 박록주 국악대전' 개최



구미시는 16일부터 2일간 고아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사)명창박록주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23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고아을 출신의 명창 박록주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권위 있는 국악대회이다.

16일 예선과 17일 본선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을 통해 부문별(명창부, 일반부, 고등부, 신인부) 입상자를 가린다.

축하 행사로 16일 18시 30분 고아을 들성 생태공원 내에서 김병조 진행으로 김덕수 사물놀이단, 요절복통 '백

파전', 퓨전국악 어쿠스틱 국악 밴드'을담', 아정무용단, 이선&가야토리, 채수정소리단, 한두레마당 예술단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국악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명창박록주기념사업회는 명창 박록주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 아카데미, 박록주 학술대회, 박록주 추모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전통예술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전통연희 축제, 전국풍물 경연대회, 무을 농악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 경북도, 싱싱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경북도·의회·교육청이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식 행사 개최



경북도는 12일 도의회 의원식당에서 제 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와 연계하여 도·의회·교육청이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의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및 감소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시식 행사를 통해 국민 안전 먹거리 인식 제고와 소비 활성화 등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각 기관장과 직원들이 수산물 소비 촉

진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150여 명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홍보용 수산물로 방어, 멧게, 오징어, 문어, 물가자미, 홍게 6종을 통해 경북 주요 어종을 소개했다. 수산물 시식은 국내산 우럭과 전복, 소라 등이 주원료로 들어간 포항 물회와 영덕의 특산물인 자연산 물가자미 무침회, 울진군 양식산 멧게가 준비됐다. 한편, 시식행사에 앞서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시식 행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포항시 죽도시장과 영덕군 영덕시장에서 수산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향후 서울 및 광역시에서 경북 수산물 대규모 판촉전을 열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수산물 안전관리와 안심 소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한철 의장은 시식회 행사에서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도민들의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문경시 도시재생 '광부의밥상' 무료나눔 행사 열어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행복밥상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9월 7일(목) 새들갯골마루에서 광부의 밥상 무료나눔을 재개했다. 지난 4월 27일 목요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10회를 진행했고, 9월 7일부터 11월 30일 매주 목요일 12회 총 22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광부의 밥상나눔'은 점촌 1, 2동 도시재생 미로(疎路)타운 거점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재가 노인 80명에게 문경시의 농축산물 등 먹거리를 활용하여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배달하는 시범사업이다. 음식은 문경지역자활센터가 준비하고 문경시도시재생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배식과 설거지, 정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박정호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광부의 밥상나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며, 지역 내 많은 주민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 점촌 1, 2동 도시재생지원사업

## 광부의 밥상 점심 무료 나눔

-장소 : 문경 갯골 새들마루 (중앙시장길 7-20)  
 -기간 : 2023.09.07(목) ~ 11.30(목) **매주 목요일**  
 -대상 : **65세 이상** (점촌 1, 2동 주민)  
 -시간 (인원)  
 · **매주 목요일 11:30 (선착순 80명)**

문의 : 070-7771-9905-6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MG 문경시 |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 대구북합혁신센터 부실시공 업체 강력 행정처분

대구광역시 북합혁신센터 부실공사에 대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북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북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 공공건설현장 부실시공 원천 차단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항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반대 집회

### 비안면 화신1리 소음대책위원회 등 주민 150여명 강력 반발



의성군 비안면 소음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비안면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청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이전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후 주민들은 '빈껍데기 공항이전 반대', '공수포 남발하는 대구시 공항이전 즉각 중단',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공항이전 결사 반대', '공항유치 앞장선 의성군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의성군청에서 의성전통시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대책위는 "공항이 들어오면 머리위로 하루에 수십수백대의 전투기가 이착륙하는데 따른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게되는 지역주민 생존권 사수가 목적이다"라며, "대구시민을 소

음공해로부터 해방시키기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대구시의 이기적인 편법 행정을 규탄하기위해 모였다"라고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주민들은 공항반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민항, 화물터미널 등 좋은 것은 다 대구시가 가져가고 의성군은 소음같은 고통데기만 남는다."라며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감언이설에 속아서 투표를 했다."며 성토했다.

김해중 대책위원장은 "대구시의 소음없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삶의 터전인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음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항이전을 즉각 백지화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구시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통영시 보건소,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

### 건강한 혈관관리 레드서클 캠페인

통영시보건소는 지난 8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광도면 내 죽도 수변공원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캠페인은 시민,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혈압·혈당 등 측정 가능한 다양한 건강부스를 운영해 자기혈관 숫자를 알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방법을 알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다양한 체형 형태의 건강부스 외에

도 광도면 주민자치센터의 재능기부 문화공연도 눈길을 끌었는데, 시민이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캠페인에 대한 관심 유도 효과를 극대화 했다.

통영시보건소장(오영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며, 언제든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자신의 혈관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고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라키비움 남해'에서 떠나는 'LP 음악 여행'

### 16일 개최...1만 5000장 소장 LP 활용한 음악 이야기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남해'가 오는 16일부터 정기적으로(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후 1시~3시) 'LP 음악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라키비움 남해에는 약 1만 5000장의 LP가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되어 있는 LP를 활용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공감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라키비움 남해와 함께 떠나는 LP 음악여행'을 준비했다. 본 프로그램은 주마다 특별 DJ를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첫 공연

을 꾸며줄 양수성 씨는 현재 부산 보수동책방골목에서 고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KBS 및 TBS 라디오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했으며, 보수동책방골목 문화축제를 15년간 진행한 바 있다. 양수성 씨는 격조높은 음악과 함께 라키비움에 전시되어 있는 LP에 얹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를 찾는 여행객이 LP를 감상하며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6일 힐링빌리지 내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남해'에는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준/기자

라키비움 남해와 함께 떠나는 LP 음악여행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MC** : 양수성 (특별DJ)  
 - 문화기획가  
 - 보수동책방골목 회장역임

· **일시** : 2023.9.16(토) 13:00~15:00  
 · **장소** : 라키비움 남해



## 강원특별자치도, 37년 장인정신의 강원 스타기업 (주)세원과 공장 증설 투자협약 체결

### 생산 제품의 다각화로 경제 활성화 기대감 상승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9월 14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자동차 필터 시스템 전문기업인 (주)세원과 자동차 선루프 제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투자 협약식은 원강수 원주시장,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 이정우 (주)세원 대표이사,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주)세원은 기존 원주 태장 농공단지 1 공장 내 2,170㎡(658평) 부지에 2024년까지 55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용

선루프 제조 공장을 증설하고, 21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 할 계획이다.

(주)세원은 1986년 8월에 설립된 기업으로 1995년 원주로 본사를 이전해 1, 2공장을 두고 있고, 20여 년간 자동차 및 중장비용 에어/오일/연료/에어컨 필터링시스템, 리저버 등을 생산해 오고 있다.

이번 투자는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특히 선루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트렌드에 맞춰 선루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인슬라이딩(In-Sliding) 선루프의 경우

올해 캐이지모빌리티(주)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0억 원을 투자해 7월부터 생산하고 있다.

2024년 원주 제3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파노라마(Panorama) 선루프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내수시장을 포함하여 중동지역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납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의 선루프제조 업체는 외국계 기업인 베바스토와 인알파가 완성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정우 (주)세원 대표이사는 "원주 공장 증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작지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진우 도 산업국장은 "(주)세원이 원주 증설 공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국내 자동차 선루프 일등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연이은 기업들의 원주시 투자 결정은 원주시가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명/기자

## 특허청,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 한국으로 모인다!

### 특허청,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TM5·ID5) 연례회의 개최(9.11~15)

특허청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인천시 연수구)에서 '2023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및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관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등이 한국에 모인 가운데 올 한 해 추진했던 협력과제의 경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연례회의(9.11~12)에서는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 방안' 등 16개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확대,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연례회의(9.14)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 디자인 보호'와 '디자인 도면요건에 관한 사용자 가이드 제작'을 비롯한 12개 협력과제를 다룬다. 특히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 디자인 보호' 과제는 각국 산업계 의견까지 반영하여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규 과제로는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하이그 국제디자인 심사결과 비교'를 제안하며, 여성의 디자인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담은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ID5) 공동선언문도 논의한다.

특허청은 회의가 열리는 5일간을 '상표·디자인 주간'으로 지정해 상표·디자인 공개 토론회 및 인천지역 기업 간담회(9.11),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및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사용자시간(세션)(각 9.13, 9.15),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학술회의(9.13) 등

부대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1일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연례회의에 참석해 각 관청 대표단을 격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디자인 공개 토론회 및 인천지역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학계·산업계 강연과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신기술 등 시장과 시장의 세계화 등으로 인한 지적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상표·디자인 분야 신 규범 형성과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선진 5개청 간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충북도, 융합바이오산업 활성화,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개소

### 국내 바이오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반 구축

충북도는 12일 융합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의 핵심시설인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개소식을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야외행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도종환 국회의원, 청주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세라믹연합회, 충북대학교, 바이오관련 기관·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술은 기존 바이오 소재와 융합을 통한 조직재생, 조기진단, 뷰티케어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감염성 질환의 진단시간을 획기적으로(3일→30분 이내) 줄이고, 임플란트 골재생시간을 단축(6개월→1개월) 시키는 등 바이오산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는 바이오와 세라믹,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를 합성한 용어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9.92억원(국비 99.96억원, 지방비 99.96억원)이 투입되어 건축됐으며, 부지 16,496㎡, 연면적 3,213㎡의 규모로 지어졌다.

본관동, 공장동, 참고동으로 구성되며,



기업입주공간 20실과 품질평가 장비 49종, 원료 가공 및 (반)제품 생산장비 45종을 구축하여 기업 입주공간 제공, 반제품 생산, 공인평가시험을 지원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5~19년도 융합 바이오소재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16~21년도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구축과 이번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개소를 통해 '연구-생산-인증-평가'의 전주기 기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는 융합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국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세라믹 분야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으로 세라믹 분야 연구개발, 시험·분석, 기술지원, 정책지원 등을 수행하며 국내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 국방부,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방부는 9월 11일 옹산 로카우스(ROKAUS) 호텔에서 강원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과 군 장병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발굴함으로써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 및 혁신성

장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올해는 총상금 1,120만원 규모로, 각 공모 부문별 대상에는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병무청장상과 상금이, 서비스 개발 부문은 방위사업청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대회 공모는 지난 5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됐고, 공모 결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112팀, 서비스 개발 부문 22팀으로 총 134팀이 출품했으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씩 총 8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요리조리팀' 국군 병사들의 학력, 특기, 자격증 정보를 바탕으로 부대 인근 교육기관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 초중고 학생 무료 과외 교육

을 지원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교육봉사 플랫폼인 '에듀밀(Edu-Mil)'이 차지했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피디에이(PDTE) 팀' 용사들의 근무 복지 개선을 위해 '이동형 총성마트(PX)-황금마차'의 물품 예약, 실시간 가격 비교, 황금마차 방문 일정 조회, 인공지능(AI) 물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황금마차 타요'가 차지했다.

국방부 강원국 기획조정실장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활성화로 스마트한 병영생활과 장병들의 창업 구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남원시, 전북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 4개 과제 선정

### 지역산업 활성화 및 현안 해결을 위한 4개 과제 신청하여 모두 선정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공모에 4개 과제를 공모해 모두 선정되어 8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북도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RIS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자율과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지역의 산업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등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공모에 남원시에서 선정된 과제는 ▲드론 특화 분야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과 스타기업 육성사업(3억원,

우석대) ▲남원형 One-Food 지역 생태계 활성화(3억원, 전주대) ▲남원시 복지, 안전 융합형 AIoT 통합 돌봄플랫폼 구축(1.6억원, 군산한호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1억원, 전주대) 총 4가지로, 과제별 컨소시엄을 구성한 3개 대학과 협력해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RIS 공모에 선정된 4개 과제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현안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다"며, "올해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내년도 지속지원 여부와 인센티브, 패널티가 결정되는 만큼 컨소시엄을 맺은 대학들과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제 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The 33th Gyeongbuk Sports for All Festival

2023.9.22.(금) - 9.24.(일) 3일간

울진종합운동장의 종목별 경기장

김용임

박지현

양지은

**개회식** 2023.9.22.(금) 17시 / 울진종합운동장

**축하공연** [식전] 김용임 / [식후] 박지현 | 양지은

※ 개회식 참가자 전원 선물증정 및 사은품 천만원 상당 추첨

[주최] 경상북도·경상북도체육회 [주관] 울진군·울진군체육회 [후원] 대한체육회

# 2023년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2일 14:30, 2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문화재단, 한국예총강원도연합회, 강원민예총 등 도내 주요 기관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명단

별첨)가 참석한 가운데, 도의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의 주요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심의와 문화진흥정책 개발지원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장은 "정부 건축 재정 기조와 도의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기존 추진하던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효율화하여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도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충남도, '개인정보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한다'

### 도, 개인정보보호 실천 생활화 위해 예방호 등에서 거리행사 펼쳐

충남도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주간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기관 등이 참여해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첫 날인 11일 예산군 예방호와 예산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을 알리고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택배 송장(添狀)의 개인정보를 지우는 '송장 지우개' 1000여 개를 방문객들에게 나눠줬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내 개인정보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한다!'는 주제로, '택배 송장 제거', '수상한 웹페이지



(URL) 주의', '지인사칭 조심' 등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로 안전한 직장과 가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온양2동, 세종대왕 자취 '어의정' 되살릴 것"

### 아산시, 12일 '2023 하반기 온양2동 열린간담회'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은 12일 '2023 하반기 온양2동 열린간담회'에서 "온양2동은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신 우물 '어의정(御醫井)'이 있는, 세종대왕의 역사를 품은 곳"이라며 "어의정을 되살리고 아산을 세종대왕을 모시는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희영 아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아산은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린 곳이다. 또 애민 정신과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자취가 남아 있는 행운의 도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런 역사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것 같아 반성한다. 올해 이순신 축제를 새롭게 재탄생 시킨 것처럼, 세종대왕도 다시 탄생시키려 한다"면서 "두 인물을 모두 선양하는 도시가 된다면 아산은 전국 최고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의 부흥을 위해 전국 온천도시 1호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차난 해소, 용화중후면 인도 개선, 골목길 포장 및 공사 후 노면 정비, 온양온천역 하부 노숙자 주취자 계도, 온양2동 6통 쓰레기 수거, 폐가 우범지대화 방지책 마련, 어의정로 사거리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의정 화장실 설치, 집중호우 시 자연부락 배수 불량 해소 등을 건의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 주민은 "2년 전 온양2동으로 이사를 오고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했다는 어의정을 찾아갔는데 물도 안나오고 문화재로 보존만 하고 있어 아쉬웠다. 세종대왕이 쓰던 물을 시민들도 마시고 눈도 닦을 수 있도록 활용했

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목에서 박 시장은 "같은 마음이다. 문화재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 송악 외암민속마을의 경우 건재고택이 있는데 활용이 안돼 거미줄이 쳐져 있다. 이를 아산의 영민관을 만들겠다"며 "어의정 역시 세종대왕을 모시면서 다시 물길을 뚫고 살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온양2동은 지난 2023년 상반기 열린간담회에서 총 14건을 건의했다. 처리 상황은 완료 6건, 2024년 가능 3건, 중장기 검토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2022년 하반기의 경우 총 42건의 건의 사항 중 처리 완료 12건, 2023년 처리 가능 6건, 2024년 처리 가능 2건, 2025년 처리 가능 1건, 2026년 처리 가능 2건, 중장기 검토 8건, 처리 불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 차질 없는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 지방보조금 한도초과로 지속적인 패널티, 2020년부터 설립 검토



태백시는 2024년 예정되어 있는 석공 장성광업소의 폐광과꾸준한 인구 감소를 통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인구 유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체산업으로 스포츠 산업을 확대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태백시스포츠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시스포츠재단은 고지대의 지역적 환경을 기반으로 스포츠시설 전문화

를 위한 투자사업, 스포츠브랜딩 및 스포츠이벤트 기획 및 개최 등의 스포츠 마케팅업무, 엘리트운동선수 고지대 훈련장 유치 등은 물론 스포츠이벤트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생활인구의 유입으로 태백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태백시는 재단 설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의 고유업무는 제외하고 스포츠 관련 사무의 위탁 및 스포츠업무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지역 재투자, 지자체의 브랜드 상승, 스포츠산업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에 따르면 그동안 스포츠대회가 지방보조금으로 개최되어 스포츠대회가 늘어날수록 지방보조금의 한도초과로 지방교부세 제한 등 지속적인 패널티 적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스포츠대회 보조금 등이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스포츠대회의 확대개최가 가능함은 물론 실질적인 행사, 축제 경비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스포츠재단 설립은 태백시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꾸준히 검토된 부분으로 2023년 9월 중 재단 설립방향을 확정하여 2023년 10월 중 타당성조사 검토의뢰 등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 천안시, 수도권전철 추가역 신설 검토

### 청수, 구룡, 북모, 신부역 4개 추가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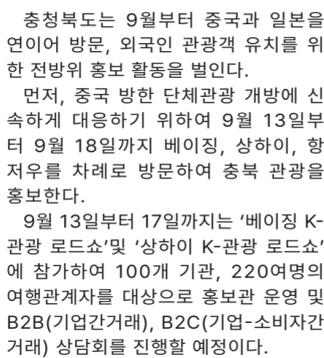


기계획으로 신설을 추진할 역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수도권전철 주변으로 도시개발 등 인구의 증가로 전철역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용역에서 신설을 검토하는 역사는 성환중축장 이전 후 조성되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인 '북모역', 천안역 두정역 사이의 '신부역',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기존에 조성된 청수지구, 청당지구의 '청수역', 청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룡역'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교통의

요충지 천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꾸준히 철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도시개발사업 및 주변 개발 계획에 맞춰 전철역 추가 신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전철역은 6개 성환역, 직산역, 두정역, 천안역, 봉명역, 쌍용역이었으며, 부성역은 사업이 확정돼 추진 중이다. 김원호/기자

## 충북도, 전방위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 나선다!

### 중국, 일본 연이은 유치 활동으로 '매력 충북' 홍보



충청북도는 9월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홍보 활동을 벌인다. 먼저, 중국 방문 단체관광 개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를 차례로 방문하여 충북 관광을 홍보한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베이징 K-관광 로드쇼' 및 '상하이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하여 100개 기관, 220여명의 여행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관 운영 및 B2B(기업간거래),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행사 외에 충북 별도로 '항저우 현지여행사 초청 충북관광설명회'도 개최한다. 9월 18일 항저우에서 현지여행사 30개사를 대상으로 충북상품 개발·판매를 유도하고, K-드라마 촬영지, 뷰티산업관광, 웰니스 관광 등 충북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도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관광세일즈 마케팅도 추진한다. 충북도 관광과장을 단장으로 한 충북 대표단은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오사카, 도쿄, 야마나시현을 방문, 현지 여행사들과 간담회

를 실시하고, 충북 관광상품 및 청주국제공항 전세계 노선 홍보를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도와 자매결연지인 야마나시현을 방문,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기구와 간담회를 통해 관광분야의 지속적 상호 교류에 대한 실무협의도 진행한다. 또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일본 최대 여행박람회인 'TOURISM EXPO JAPAN 2023'박람회에 참가하여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관광홍보 부스 운영, 상담회 진행 등 활발하게 움

직일 예정이다. 충북도 장우성 관광과장은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위하여 도가 다각적이고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외 유치 활동을 통해 개방된 중국 단체관광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K-뷰티, 한류 등과 연계한 충북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충북 방문 수요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원주시, 영화'치악산'상영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없도록 시민의 편에서 끝까지 노력

### 치악산 괴담 영화상영막지 못해



원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외 3개 법인이 '치악산'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신청이 9월 12일 기각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영화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그리고 치악

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영화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벌어졌다는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지난 8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내에서 큰 반란이 됐으며 시민단체의 단합된 개봉 반대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는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비록, 영화 상영을 맞지는 못했으나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함께 힘써주시 구룡사와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둔, 그리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영화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경남도, 도 경계지역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강화

## 가을철 추석 대비 취약 양돈농가 방역 및 소독관리 중점 점검

경상남도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도 경계지역 양돈농가 주변에 야생멧돼지 피체 살포를 지원하여 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9~10월은 가을 수확철 영농활동과 멧돼지 이동이 늘어나고 추석기간 사람·차량의 왕래가 잦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그간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도는 양돈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경남도본부 드론운용전담팀의 협조를 받아, 경남 북부 경계지역 양돈농가 주변에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

까지 야생멧돼지 피체를 집중 살포한다.

양돈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피체 살포 지원은 경북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역과 가장 인접한 거창군 4개면(고제면, 용양면, 북상면, 가북면)을 시작으로 도 경계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 달 말까지 가을철 및 추석명절 위험시기를 대비하여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가 방역시설 운영 상황과 소독 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함으로써 농가

별 차단방역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을철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로,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 사이에 도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양돈농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시설 운영,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양돈농장에서 총 37건(경기 17건, 인천 5건, 강원 15건), 야생멧돼지에서는 총 3,210건(경기 674건, 강원 1,856건, 충북 423건, 경북 257건)이 발생했다.

장재현/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은 행동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 양돈농장 종사자 등은 입산 활동 자제
- 야생멧돼지 서식지에 접근 금지
- 경작활동 병행농장은 더 철저한 방역관리
- 영농장비 반입 금지, 농장 출입 시 환복·소독 실시
- 농장·돈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외국인 종사자 방역관리, 축산차량 2단계 소독

## 파주시, "자동차 무상점검으로 안전한 귀성길 되세요"

### 추석 귀향 앞두고 승용차 400여 대 선착순 점검

파주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귀향길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7일 10시부터 15시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주차장(경의로 1180)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점검은 귀향길 장거리 운전 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정비 불량으로 인한 자동차 고장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관단체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CarPos) 파주시지회의 봉사자 80여 명이 승용차 400여 대를 선착순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엔진오일과 냉각수량,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상태와 등화장치 점등 여부 등이다. 특히 소모성 부품인 와이퍼와 전구를 교환해주고, 엔진오일과 워셔액도 무상으로 보충해 준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한 차량은 전문업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표와 함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자동차 무상점검을 통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이 되시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민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파주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귀성길 자동차 무상점검 받고 안전한 귀향길은 평상일과 특별하네요.

9.17(일) 10:00~15:00

장소: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주차장) 경의로 1180(16층 1415)

대상: 승용차 및 렌터카 차량의 승용차

- 엔진오일, 냉각수, 워셔액, 와이퍼 교체
-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브레이크 오일 등 점검 및 보충
- 에어컨, 에어컨 필터, 에어컨 송풍기 점검 및 보충
- 와이퍼 교체, 에어컨, 송풍기 점검 및 보충
- 엔진오일, 냉각수, 워셔액 교체 및 보충
- 차량상태 확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설명

파주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파주시지회  
지원: 김경일 (☎ 031) 941-1201  
비서: 정경민 (☎ 031) 940-5781

## 도봉구, '안전', '편안' 추석 종합대책 추진...분야별 특별 점검도 병행

### 11일, 2023년 추석 종합대책 특별 점검회의서 분야별 준비상황 등 대응체계 점검

도봉구가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추석 종합 대책'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 '2023년 추석 종합대책 특별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준비상황과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하여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추석은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연휴기간이 역대로 늘었으며,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돼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물가는 전년 대비 다소 안정됐으나, 사과, 배 등의 과일값은 폭염·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해 ▲구민 안전 확보 ▲교통안전 강화 ▲생활편의 제공 ▲불가안정 지원 ▲취약계층 나눔 5개 분야의 명절 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반과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도봉구보건소에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치 등 정보를 집중 홍보한다.

안전 시설물 점검에도 주력한다. 하천 수방시설물, 기반시설, 공사장, 가스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더불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점검 또한 실시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추



석 다음날인 9월 30일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른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전날까지 배출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고, 연휴기간 청소상황실 및 순찰기동반을 운영해 청소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

추석 물가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방문해 사과, 배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한 가격점검,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장 인근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나눔 대책으로는 저소득 주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이웃에게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가위 동네잔치를 마련해 추석의 넉넉한 인심을 나눈다. 보호자 부재 등으로 급식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연휴 기간 끊김 없는 아동 급식을 지원한다.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긴 연휴로 각 부문별로 꼼꼼한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면서,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수원시, '2023년 통합물관리 실천계획' 대부분 정상 추진

### 제5기 통합물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회의 열고, 실천계획 점검

수원시의 '2023년 통합물관리 실천 계획' 대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제5기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서면으로 '2023년 제2회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열고, 2023년 통합물관리 실천계획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2020년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통합 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통합 물관리 추진계획은 ▲정책 ▲물순환 ▲하천·호소 ▲상수·지하수 ▲거버넌스 ▲하수 등 6개 분야의 전략과 목표, 9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실천 계획은 6개 분야 23개다.

'지하수관측망 자동화 추진'·'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적 운영' 등 7개 실천계획을 목표로 달성했고, '광교저수지 녹조저감사업' 등 14개 계획은 정상 추진 중이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2개 계획이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

'지하수관측망 자동화 추진'은 2020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2023년도 수동관측망 잔여분 14개소의 자동화 추진을 완료했다.

또 광고저수지에 녹조제거장치(에코봇·부력수차 등)를 설치하고, 녹조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전 녹조 관리로 수

질을 개선해 '조류경보제' 발령일 수 0일을 유지했다.

통합물관리위원회는 ▲통합 물관리 계획 수립 ▲물환경·지하수·소하천·상수도 분야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물환경 시책에 대한 시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23년도 주요 실천계획은 ▲통합 물관리 실천계획 수립 ▲물관리 정보 열린공개시스템 구축·운영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 수질 검사 ▲호소 수질개선 대책 추진 ▲친환경적인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 ▲수원 하천 거버넌스 실무협의체 운영 ▲하수처리수 재이용 추진 등이다.

김범상/기자



**창과방패**

고소특 공익신고

# 창과방패

(돈 버는 비법 지침)

문성욱 지음

문성욱 지음

문화여성

현재 운영하는 튀김기에 기존 식용유를 바이탈로 기기에 넣고 활성화시키면, 양자 에너지 생체 활성화로 식용유의 산패 및 열화방지 기능이 우수하여, 식용유의 점도가 현저히 낮고 현상이 되면서 1. 겉과 속이 동시에 튀겨져 튀김이 깨고 맛있었습니다. 2. 유증기 발생이 최고 99.98% 감소되어 불쾌한 냄새가 없어져 주방 환경이 청결해지고, 인체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주) Myeongjin Vitalro **명진 바이탈로** 한국친환경실천연구원

설치·상담 문의 **1899-9659**

A/S 및 소파리상담 02)477-5004

**튀김 주방大변혁**

유증기 퇴출로 쾌적한 주방 환경

# 유해물질 99.98% 감소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급식식당 종사자 피부-산염자해 인정※

급식노동자 폐암 이상소견 1만명 달해...오염자 341명, 충격적인 검진 결과

17개 시도육청 폐암검사 결과 수검자 32.4% 이상소견 발생

수년째 경고했지만 중력...학교비정규직노동자 검진 당사자 입장 발표

해당년 급식실 환경 개선의 인력 증원, 교육청 예산 추가

**Vitalro는 국내 유일 최극소량 유증기 발생**

(유증기로 인한 주방-매장의 악취·화재발생·조리사의 건강악화를 예방합니다)

바이탈로 식용유와 일반 식용유의 유증기 발생량 비교 실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2020.03.24.~04.05.)

**바이탈로 식용유 일반 식용유 0.02wt% 0.17wt%** (중발량 170°C, 24시간)

HBS 고향방송 선정 맛집여행 Vitalro 설치업소

명진원 식재료와 깨끗한 바이탈로식용유로 고객에 대한 정성이 깃들 채워주고 안전한 매장

(주) Myeongjin Vitalro **명진 바이탈로** 한국친환경실천연구원

설치·상담 문의 **1899-9659**

A/S 및 소파리상담 02)477-5004

# 경북교육청. 불편한데 재미있는 학생수련체험교육 꿈꾼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생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등 4개 수련기관을 생태전환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련기관 재구조화 종합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산들산들 이음'으로 이름 붙인 경남형 수련·체험교육은 자립과 공존, 실천의 지구 생태 시민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심신 수련 중심의 프로그램을 수련기관에서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련기관이 개발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택해 진행한다.

도내 학생 수련기관인 학생교육원(의령)은 자굴산 한우산, 덕유학생교육원(함양)은 덕유산국립공원, 학생교육원 남해분원(남해)은 송정해수욕장, 산촌유학교육원(함양)은 용추계곡에서 내려오는 지류천과 기백산을 접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수련기관 재구조화 종합 계획에 반영했다.

종합 계획에는 △수련 기간에 불편을 감수하는 기후 행동 '모두모두' 생활 실천 △체험 수련 전후에 산들산들 이음 교육과정 운영 △선택형 모듈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선택권 확대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련기관과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산들산들 이음 교육지원단 운영 △덕유학생교육원을 거점교육원으로 지정 △도내 수련기관 네트

## 개인 쓰레기 '0' 도전 등 불편 감수하는 기후 행동 실천



워크 구축으로 학습생태계 확장 △친환경 수련기관 환경 조성 등 생태전환교육 중심의 전문 수련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 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수련기관은 수련 기간 내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기후 행동 생활 실천 방안을 추진한다. 수련기관은 지역 먹물 거리(로컬푸드)와 채식 식단으로 구성하여 급식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개인 쓰레기 '0' 도전, 체험 과정에

서 본 것을 그대로 두기, 야생 생물 존중하기, 자연환경 보호 활동을 병행한다.

둘째 선택형 모듈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기후 행동 '모두모두' 생활교육과 수련기관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련기관이 자체 개발한 과정과 기관별의 자연환경과 기반 시설을 담은 '사계사색'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련 활동 방법도 더욱 다

양해진다. 그동안 학교에서 수련기관을 방문하여 운영되는 데서 수련기관이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 방문형, 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으로, 숙박도 당일형, 1박 2일, 2박 3일로, 공공 수련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수련기관 재구조화 수련기관 이음 학생이 2023년 1만 5,000여명에서 2027년에는 3만 7,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과 수련 운영 기간도 다양화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한다. 신청부터 수련 활동, 평가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을 더 편리하게 한다.

재구조화 운영 방안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를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수련 활동에서 익힌 생태 중심의 경험이 일상생활, 학교 생활, 가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수련기관 재구조화의 목표는 학생이 기후 위기를 인식하여 생태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교직원과 학부모도 함께 일상생활을 생태 중심으로 확산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교육청, 학력 신장 이끌 전국 최초 '공교육 인강' 첫선

## 부산지역 일반고 1학년 대상 '부산형 인터넷 강의' 운영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자기주도학습 활성화를 통해 학력 신장에 나서는 부산시교육청의 새로운 시도가 첫선을 보인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2일 오후 사상구 구덕고등학교에서 공교육 인강 '부산형 인터넷 강의' 시범 오픈 행사를 열고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교육 업체와 일부 공공 기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 경우는 있었지만, 교육청(공교육)에서 인터넷 강의를 직접 제작한 것은 부산이 전국 최초의 사례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부산지역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국어·수학·영어 영역) 등이며, 콘텐츠는 정규 강의 160차시 내외, 숏폼 70여편으로 이뤄졌다.

강사진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교사들로 꾸렸다. 서류전형, 수업 실연(카메라 테스트), 면접 등 심사를 거쳐 6명을 선발했고 교과별로 국어 1명, 수학 3명, 영어 2명이다. 교재는 강사와 제작지원팀 교사들이 함께 개발했고, 무료로 배부한다.

부산형 인강은 기존 인터넷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차별점을 두고 개발했다. 먼저, 수능시험에 대비해 문제 풀이 기술 전수에 집중된 사교육 인강과 달리 부산형 인강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제시

하는 기본 개념·원리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응용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중·고·대입 등 내신 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부산형 인강은 기존 인강의 단점인 '일방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질문 방식을 다양화했다. 기존 텍스트 중심 Q&A와 함께 모르는 부분을 캡처하거나 짧은 동영상상을 올려 질문할 수 있다.

방과 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9시까지를 '집중 답변 시간'으로 설정해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숏폼 콘텐츠도 70여 편 마련했다. 강의 콘텐츠와 강의 내용 이해를 돕는 배경·자투리 지식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시범 운영 중인 부산형 인강시스템(BASS)과 함께 부산형 인터넷 강의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등을 통한 학력 신장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이어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형 인강'은 특히 원도심·서부산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초 학력 증진과 학력 신장에 이바지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또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양성평등연수로 성인지 감수성 높인다!

## 양성평등 문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부터

경북교육청은 11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교육분야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지난 7일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에서 남서부 12개 지역 관리자 대상으로, 이날 연수는 동북부 10개 지역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수 내용은 △나드교육연구소 박기영 강사의 '성폭력 예방교육' △소담힐링연구소 이자리 강사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특강 등이다.

특히 최근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우울감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연계를 위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짐식'을 진행했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더불어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남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주차장 개방

경상남도교육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도민과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기관과 학교 등 주차장 683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장소와 개방 시간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알 수 있으며 공유 누리과 공공데이터포털,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

된다. 학교 주차장 이용자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또 학교 시설물 훼손 방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의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환수 재정과장은 "귀성객들의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개방하니, 도민과 귀성객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장재현/기자



# 영양교육지원청, '독서 비타민'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 책을 통한 행복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영양교육지원청은 9월부터 책을 통한 행복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과 협력하여 직원들을 위한 독서 공간 '독서 비타민'을 운영 중이다.

'독서 비타민'은 직장인들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직장생활에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자기 계발에 보탬이 되고자 영양도서관에서 마련한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순회문고 서비스' 사업이다.

희망하는 기관은 영양도서관으로 개설신청서를 제출 해야하며 도서 대출과 반납은 담당자와 협의 후 선정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김유희 교육장은 "책 읽기 시간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독서 공간으로 행복하고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전북교육청, 2024학년도 고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 전북교육청, 고교 신입생 배정... 전주 28명→26명, 익산 27명→24명으로 줄여

2024학년도 전북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가 하향 조정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은 1만6,797명으로 올해 1만7,794명보다 997명 감소한다.

2007년생(황금돼지띠) 입학으로 올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신입생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불임 참조'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명까지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학급당 28명에서 2명 감소한 26명을 배정했고, 익산지역은 학급당 27명에서 3명 감소한 24명을 배정했다.

군산지역은 여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군산외고에 한시적으로 증설했던 2학급을 감축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올해와 같이 27명으로 배정했다.

3시를 제외한 지역의 일반고는 학급당 20명을 배정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22명에서 27명까지 차등 배정했다.



특성화고는 올해와 동일하게 학급당 20명을 배정했으며, 특목고와 자율고는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별도 배정했다.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는 2025학년도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다 2026학년도와 2028학년도에는 2010년생 백호띠, 2012년생 흑룡띠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29학년도부터는 급

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증가 인원을 반영해 지역별 정원을 차등 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입학 정원 배정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영등포구, 클래식 선율과 함께 하는 'SF 북 콘서트' 개최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하고 흥미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마련

영등포구가 19일 오후 7시 영등포구청 별관 강당에서 김초엽 작가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구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유익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이번 북 콘서트를 마련했다.

가을 맞이 첫 북 콘서트로 한국 에스에프(SF)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초엽' 작가가 '나의 세계를 키우는 SF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2017년 등단과 동시에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데뷔를 한 김초엽 작가는 서점가에 '김초엽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방금 떠난 세계', '행성어 서점', '지구 끝의 온실' 등이 모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등극할 정도로, 김초엽 작가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어렵고 낯선 에스에프(SF) 장르를 독자들과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북 콘서트는 클래식 선율을 선사하는 현악 3중주 공연으로 서문을 연다. 이후 작가의 대표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나누는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 외

에도 과학 전공자가 바라본 기술과 인간 관계, 에스에프(SF)를 즐기는 법, 공상과학 소설 창작 과정, 과학 꿈나무들에게 조언 등 진솔한 이야기도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인회도 마련됐다.

북 콘서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은 11일부터 포스터 내 정보QR(QR 코드)에 접속,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북 콘서트가 과학과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과학이 어렵다는 인식을 낮추고, 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의 유익성을 알리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 읽는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고 있다. 그간 구는 주제 공모, 참여자의 투표로 '공감의 반경(장대익)',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하재영)', '탄소로운 식탁(윤지호)' 3권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이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해 10월 개최 예정인 '포포스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차해엽 미래교육과장은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책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북 콘서트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즐거움을 한껏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 송파구,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전국최초 민간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확대 ▲정당현수막 관리 개선 대응책 수립 ▲자체 음식물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적극행정 장려로 창의·혁신 조직문화 조성



송파구가 구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모범사례 3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조직 내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소극 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2회씩 반기마다 심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있다. 심사는 구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가지의 심사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이번 2023년 상반기 선정사례는 ▲전

국 최초 민간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확대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대응책 수립 ▲자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다.

먼저, 구는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구민의 정신적 피로에 공감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당현수막 절대 금지구간' 지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관련법 개정 건의 및 가이드라인 시행을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 타의 귀감이 됐다.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국 최초 민간건축공사장 건설기계에 사전 작업허가제 및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한 점도 눈에 띈다. 또, 구청과 건축안전센터를 오가야 했던 해체 업무를 건축안전센터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 증진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및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구는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주민인식 개선부터 각종 시설 구축·운영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6일 '2023.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1위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로 제작, 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구민 체감 행정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권자인 구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섬김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공직마인드에서 시작된다."며,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역동하는 송파를 이끌어 나가도록 공직 내 적극 행정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마음도 풍성! 관악구, 동네 곳곳에서 만나는 독서의 달 프로그램

작가와 만남, 강연, 체험 등 동네 곳곳으로 찾아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 '공연으로 또는 강연이나 체험으로' 책을 만나니 독서가 더욱 즐거워요" 동네 도서관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관악구 주민이 소감을 말했다.

관악구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구민들의 삶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관악구립도서관과 함께 공연과 전시, 북토크 등 다채로운 장르와 연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구는 독서하기 좋은 가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가지각색의 취향을 가진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우선 오는 9월 14일에는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에서 김미주 작가와 함께하는 '챗GPT가 내 생각을 훑치다면?'이 준비되어 있다. 챗GPT에 관심있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지식 저작권에 대해 알기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서 9월 16일에는 문해력 강화를 위한 '문해력 교실: 잘 읽고 잘 쓰는 법'이 마련됐다. 독서 습관 형성에 필요한 독해와 작문 역량 증진을 위한 강연으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9월 23일에는 도서 원작의 영화 상영 프로그램 '별별 시네마: 원더'가 준비되어 있다. 별별시네마는 글빛정보도서관 내 주민친화 문화플랫폼인 '별다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글빛정보도서관 박소현 사서는 "별별 시네마는 다양한 장르로 만나는 독서 문화 코너로, 시각적 효과로 원작의 의미가 더욱 입체적으로 전달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는 아동친화 예술 문화를 조성에 기여하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 공방 체험 '만들며 놀자'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오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관악아트홀 어린이라운지에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구는 도서 꾸러미 가방 및 구독권 증정, 북닉 세트 대여 등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흥미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관악구 독서의 달 프로그램은 관내 구립도서관 9개(▲관악중앙도서관 ▲글빛정보도서관 ▲낙성대공원도서관 ▲용꿈꾸는작은도서관 ▲은천동작은도서관 ▲조원도서관 ▲고급습니다하난곡작은도서관 ▲성현동작은도서관 ▲책이랑놀이랑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별 장소,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통합도서관 또는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악문화재단 도서

관플러스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도서관이 지역 문화예술 조성에 큰 주축이 되어 그 공간과 역할이 관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소외되는 주민없이 모두가 독서의 달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골목 곳곳 세밀하게 비추겠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 16일부터 2일간 반포대로 일부구간 양방향 교통통제... 서리풀페스티벌 열려

구 관계자, "우회노선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 당부... 시민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부탁"

서울 서초구는 오는 16일부터 진행하는 도심 속 음악축제 '서리풀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지하철 2호선 서초역부터 서초3동사거리 반포대로 1km 양방향 구간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시간은 16일 오전 0시부터 18일 오전 4시까지이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서초경찰서, 서초·방배모범운전자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교통통제를 진행한다. 주요 지점 24곳에 480여명의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장의 교통통제 근무자들은 우회도로 안내 등을 통해 운전자의 불편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전체 34개 노선 버스의 임시우회 협조를 지난달에 마

쳤다. 한편 서리풀페스티벌은 2015년 처음 열린 후 2019년까지 86만여 명이 찾아온 대표적인 가을 축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올해는 '서초 is the music'이라는 주제로 반포대로 곳곳에 클래식부터 재즈, K-pop, EDM 등 30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틀간 펼쳐진다.

구 관계자는 "반포대로 일대 교통통제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 구간을 이용할 차량은 미리 우회 노선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제27회

# 봉화송이 한약우 축제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

2023.9.21(목)~9.24(일)  
봉화읍 체육공원, 관내 송이산 일원



주최:  봉 화 군

주관:  봉화축제관광재단  
Bonghwa Festival & Tourism Foundation